

## 경제 비중 절반 수도권 쏠림 광주·전남은 7년째 제자리

### 2007년 지역내총생산 분석

정부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거쳐 집중 지원·육성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경제 규모가 한국 경제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경제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반면,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제자리 걸음이거나 극히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기준연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2007년 경제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제규모는 모두 478조 원으로 전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6%에 달했다. 반면 경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의 경제 규모는 328조 원으로 한국 경제의 33.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떨어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규모는 광주가 21조 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였으며, 전남은 47조 원을 기록해 경기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간순위의 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전남경제가 한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광주는 2.2%로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 역시 지난 2000년 4.6%에서 2007년 4.8%로 7년간 0.2% P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에 있어서 광주는 4.6%, 전남은 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인프라의 격차가 누적되어 온데다, 수도권 경제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이 홀대받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광주는 성장을 연쇄지수를 따졌을 때 2005년 기준 수치를 지수 100으로 잡을 경우 2007년 110.4를 기록,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수십년간 뒤떨어지며 굳어진 근본적인 산업간 경제규모의 격차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경제 불균형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윤영기 기자 redplane@

## 임차농 쌀 직불금 포기 속출

### 법령 강화에 땅주인 동의 못받아...전남 신청 63% 급감

지난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 파문에 따라 정부가 올해 쌀 직불금 신청 조건을 강화해 신청이 급감하면서 애꿎은 임차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농민들에 따르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말까지 각 시·군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외지 경작을 하는 농민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 작업이 더 까다로워진데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 농민은 땅 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신청이 전년에 비해 급감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쌀 직불금 신청 마감 이틀을 앞둔 29일 현재 10만8천 건(12만3천ha)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신청건수가 17만 건(19만ha)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63%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신청이 감소한 것은 기존 대

상자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포기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땅 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임차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직불금 신청 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재 지주들의 경우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자신이 소작농 대신 직접 쌀 직불금을 받으면서 자경(自耕) 사실을 증명하는 편법을 써왔고, 소작농들은 땅을 빌려 쓰는 ‘약자’ 입장에서 지주의 편법 사실을 묵인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부재지주가

소작농의 쌀 직불금 수령에 동의할 경우 농지원부상에서 지급될 스스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근거가 변경되게 되고 결국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증가해 받게 돼 소작농의 직불금 수령 동의를 거절하기 일수이기 때문이다.

해남의 한 임차농민은 “소작농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부재 지주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쌀 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임차 농민들은 땅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땅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힘들어 한다”면서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 농민들은 사실상 눈을 무단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장·마 사실상 끝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음달 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본격적인 찜통더위는 다음달 10일 전후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달 5일까지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이라고 29일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20~25도,

### 내달초까지 맑고 선선

### 10일께 본격 찜통더위

최고 28~33도)보다 조금 낮은 최저 18~24, 최고 24~31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장마전선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찜통처럼 북상하지 못해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형호기자 khh@

### “물축제 신나요”

29일 개막된 ‘제 2회 정남진 물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장흥읍 중앙교 아래에서 시원스레 물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2009 전남도 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된 물축제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장흥=위직리기자 jrwi@

## DJ, 기관 절개 수술 받아

### 치료 장기화 대비

연세대 신촌세브라스병원은 29일 폐색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치료 장기화에 대비해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오늘 오후 4시15분 기관 삼관의 불편함과 합병증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술을 했다. 수술

은 30분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기관지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흉상 환자의 치료가 길어지면 입에 부착한 호흡기를 떼고 기관지 절개 수술로 갑상선 밑의 목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공호흡기를 입에 부착하면 기도

하면서 환자를 불편하게 해 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수술 후 마취 상태에서 바로 깨어나셨고 의식도 있는 상태. 체온, 혈압 등 신체활동력수도 정상 범위 내에 있다”라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증세가 호전되다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 날인 지난 23일 폐색전증이 발병해 다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바캉스 특집 - Cool~하게 즐기는 3색 피서 ▶10·11면

지구촌 구석구석...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전합니다

www.gnnews.com

연립뉴스